3 -MAY 2 6
Copy ____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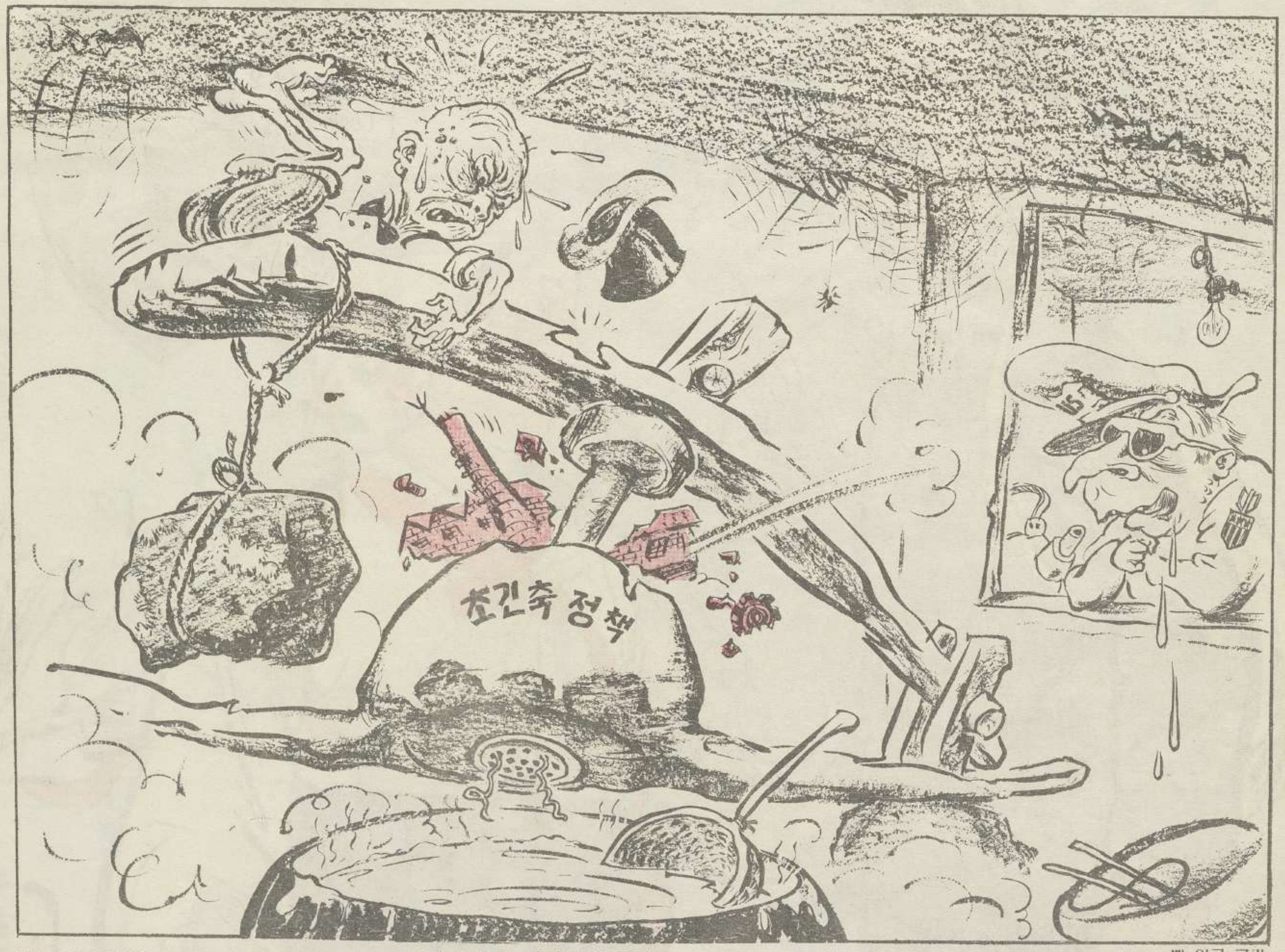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4월호

1957 년(77)

활살

리 승만의 초 긴축 정책



벡 인균 그림

리 승만 도당은 방대한 군사비 지출에 수반되는 약 800억환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초 긴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을 최대한으로 략탈하고 있다.

미 제—빨리 가져와!
리 승만—다리가 부러질 지경으로 눌러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남조선 입학 풍경

박 승

해마다 학교는 줄어 남조선에서의 입학난은 참으로 돈과 안면과 빽의 싸움이다. 그리고 보면 실제 입학 시험을 치는 것은 학생들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학부형들이다. 남조선 어느 기자의 수첩을 두져서 여기에 그 일단을 소개한다.

× ×

을지로 5가에서 살인 사건이 있어서 현장으로 갔다 오던 길에 나는 우연히 청계 시장에 들렸다.

장마당 안에 발을 들여 놓자,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먼저 들려온다.

〈이렇게 매매가 없는 걸 보니 무슨 번동이라도 있는가봐!〉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마다 입학기엔 그렇다오.〉

그러나 이를 비웃는 듯 술집들은 근래에 보기 드문 호경기다.

〈주인 아주머니, 고사를 톡톡히 드렸나 보군요. 요즘은 매일 같이 대 만원이니……〉

〈고사는 웬 고사유, 그저 시험 때라 그런게지유.〉

× ×

볼 일이 있어 문교부 고등 교육국에 들렸다.

방안에 들어 서는데 어디서 걸려 오는 건지 책상 우에서 전화 벨이 울었다. 수신기를 들었던 사내는 곧 회전 의자에 앉은 자기 상관에게 전화통을 돌린다. 전화를 받아들며 회전의자 등받이에 누울듯이 몸을 젖혔던 이 고관 어른의 몸은 갑자기 앞으로 숙으려 진다. 〈예, 누구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 그애가 벌써 대학에 들게 됐나요! 참 세상도 빠르군! 예, 념려 마십쇼. 저 그런데 수험 번호는요? 아……140번……그렇게 하지요.〉

그가 수화기를 놓고 무언가를 조금 쓰려고 했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집에 있겠는가구요? 그럼은요, 오늘은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어느 학교에요? 글쎄 힘써 봅시다.〉

30분 가량,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전화는 계속 꼬리를 물고 걸려왔다. 또 직접 찾아 오는 손님들도 많아 이 책상 저 책상에서 이마를 맞대고는 쑤군쑤군……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말 중에서 공통한 어휘를 찾아 본다면 〈꼭 부탁합니다.〉라는 말일 게다.

이 꼴을 보고 돌아 오면서 나는 혼자 생각해 보았다.

〈저렇게 관리들이 너나 없이 모두 부탁을 받고 보면 학부형들 끼리의 싸움인 줄만 알았던 입학 시험은 인제는 관리들 끼리의 싸움이 되겠군!〉

× ×

대학은 고사하고 중학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학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엔 학교 마당은 어뚝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

현관문 옆으로 와아 하고 모두 모여든다. 수험 결과가 현관 옆 긴 담에 나붙었던 것이다. 모두 발돋음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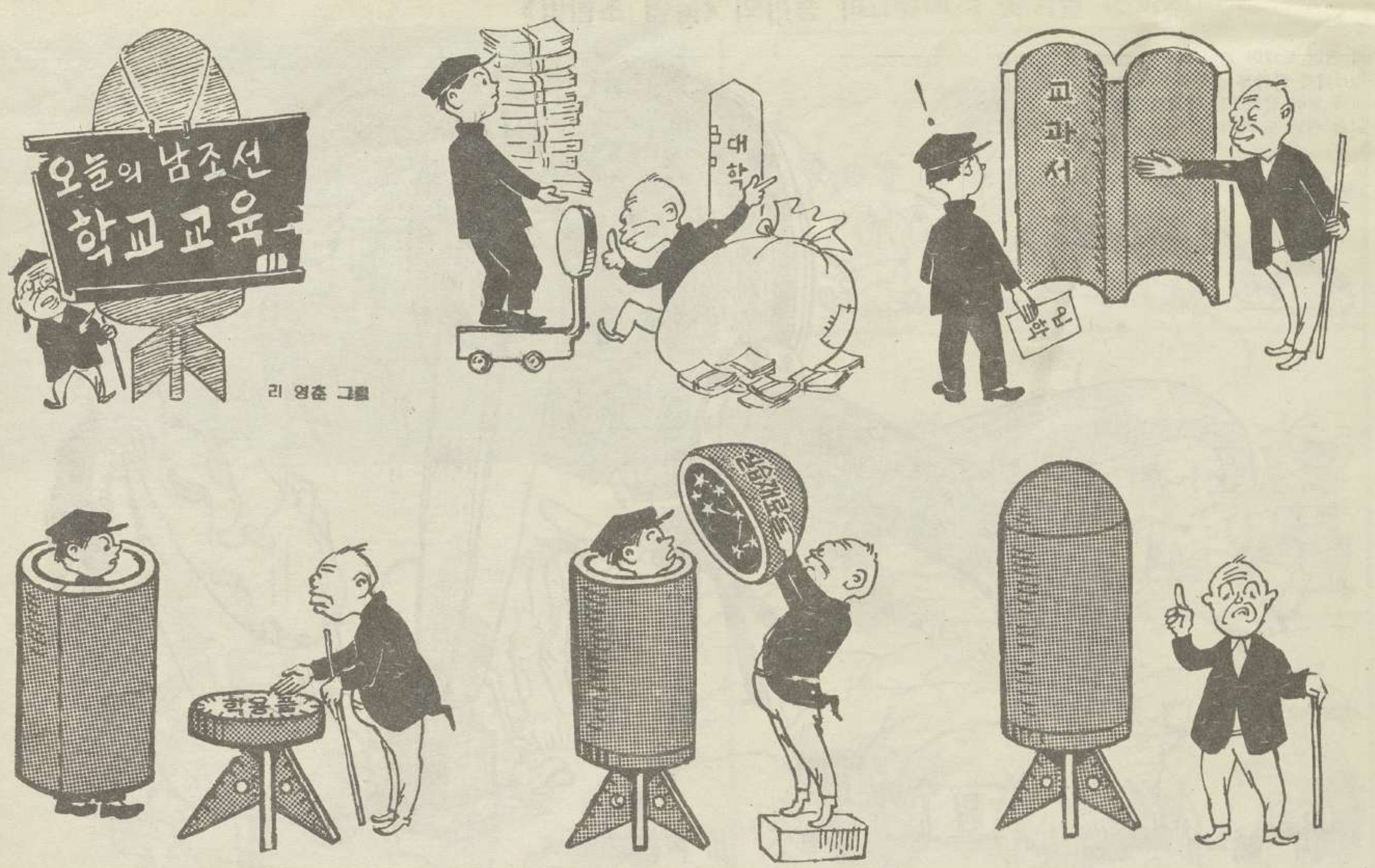
〈아버지, 저기 있어요, 390번!〉

한 학생이 고함을 치자 옆에 섰던 아버지는 〈어디?〉 하며 사람들 속을 헤염쳐 나가다가 모자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어깨를 짚고 고개를 드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부자의 기쁨은 잠시 동안이였다. 교무실에서 한 교원이 붓과 먹통을 들고 나오더니,

〈좀 오기된 것이 있어서 수정합니다.〉하고 교자를 드디고 올라서서 390번 우에 줄을 쭉쭉 두줄 내리긋고 다시 새 번호를 기입해 넣는 것이였다.

이렇게 입학을 둘러싼 갖은 협잡들은 합격자 발표의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것이다.



리 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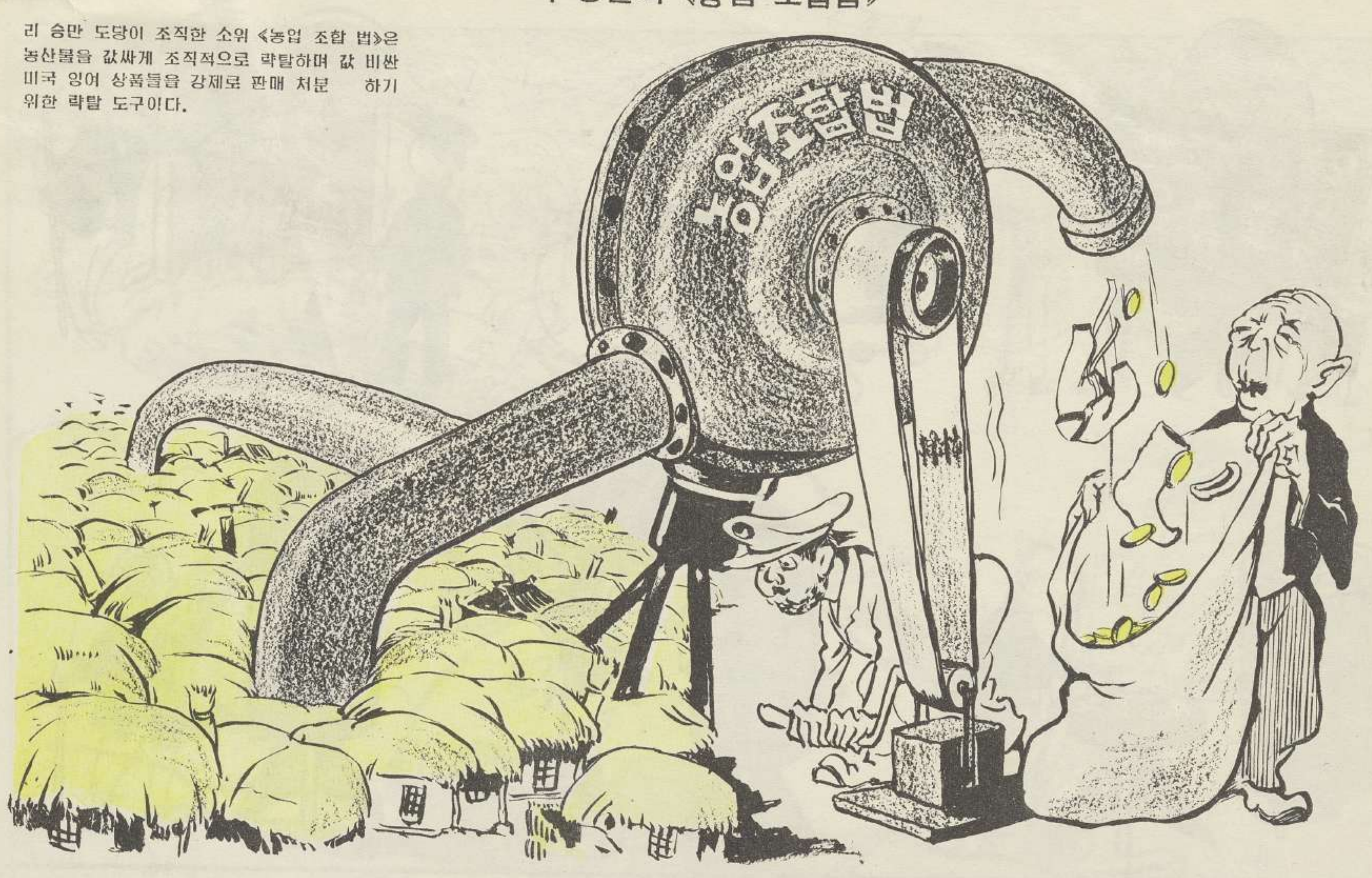
북진 굿 열두 거리

박 승히 그림

리 승만—어—허! 허구 많은 대감 중에도 미국 대감이 제일이시다
북진 성취 이루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리 승만의 《농업 조합법》

리 승만 도당이 조직한 소위 《농업 조합 법》은 농산물을 값싸게 조직적으로 략탈하며 값 비싼 미국 잉여 상품들을 강제로 판매 처분 하기 위한 략탈 도구이다.



홍 종호 그림

뒤로 가는 진군가

비'바람 휘휘 날리는 못살포 훈련소
오늘도 아침부터 구보를 하네
라이온 위스키 바라지도 않건만
보리밥 큰 덩이가 그립습니다.

박 노을

충청도 론산하면 은진미력이 머리에 떠 오르던 것도 옛날의 일이다.

남해의 제주도하면 서귀포의 그 곱고 맑은 물'결이며 미역 따는 해녀들의 모습이 전설 같이 생각키우던 것도 또한 옛날의 일이다. 오늘은 소위 《국민병》으로 강제 징집된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휘몰아치는 훈련소가 이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들을 떼운 남반부의 어버이들이 긴 한숨지으며 그 곳 하늘들을 물끄럼이 바라보고들 섰다.

산 같이 큰 미력이 있다는 곳, 한번 구경도 하고 싶던 론산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는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론산이며, 제주도 그 하늘 밑에 오늘도 아들들은 강제 훈련의 기압을 강요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기압도 가지가지 있다는 그 정경, 매맞고 섯는 아들들의 모습이 떠 오른다.

개고리 기압, 토끼 뛰염, 꿩치 기압, 말채 기압, 총 기압, 서로 때렸, 몸 동 앞으로 빼쳤, 옆드러 빼쳤, 압록강 철교를 만드렀……

그렇다! 리 승만의 북진 발광증은 남반부 청장년들을 강제 징집하여 이 훈련소에로들 이송하고 있다. 론산으로, 제주도 모슬포로.

그러나 리 승만은 그 가지가지 기압 훈련으로도 제 뜻이 마음대로 이루워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리 승만은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장교들이란 장교들은 《사바사바》에 눈이 뒤집혔으며 사병들의 마음은 딴 곳으로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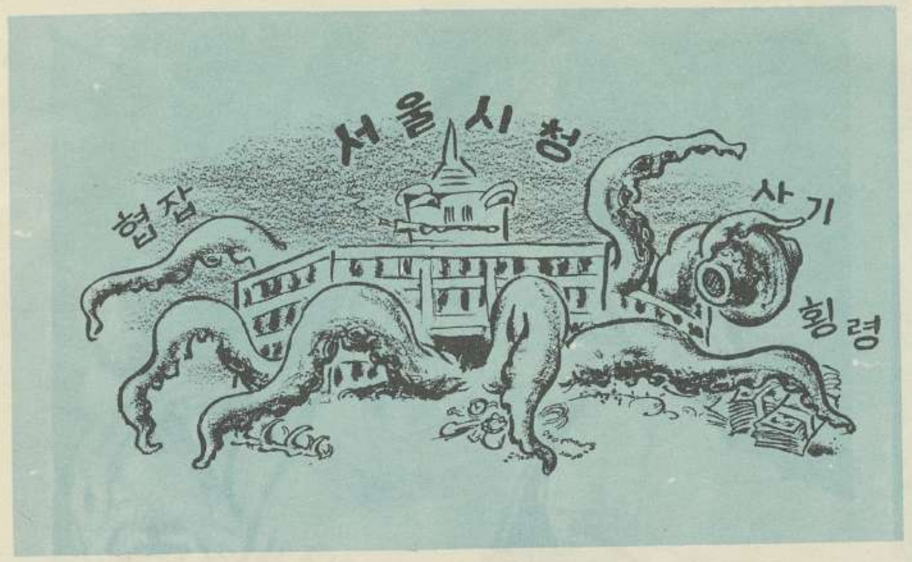
훈련 장교들은 훈련시키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 보다 뢰물 먹을 구멍 뚜르기에 눈이 뒤집혔음에야. 큰 놈은 큰 것을 먹고 작은 놈은 작게 먹기 마련인가?

그렇기에 지금 《국군》 내에서는 이런노래가 류행되는 것도 우연한 일은아니다.

일등병, 이등병은 누릉지 도적놈.
하사, 중사는 신발 도적놈.
소위, 중위는 관물 도적놈.
소령, 중령은 창고 도적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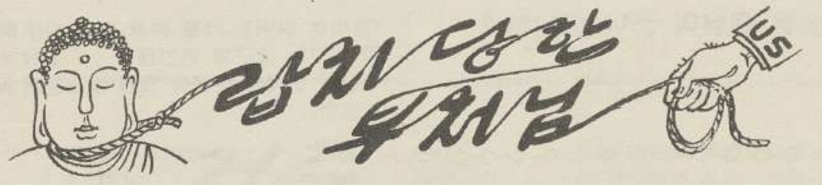
그렇기에 바다도 아름다운 제주도 모슬포를 오늘 훈련생들은 《못살포》라 부르며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잡지에서 전재



고향에서 쫓겨날 때까지…

백 인균 그림



랍치 당한 부처님

신 흥 순

얼마전에 경남 해인사의 석조 불상이 간데 온데 없이 행방 불명이 되였다. 〈그 육중한 돌 부처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괴상한 사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범인 하나가 부산 경찰서에 체포되어 왔다. 그는 돌 부처를 훔쳐 간 도적놈도 아니오 또한 공모자도 아닌 다만 거저 떠 돌아 다니는 백 운학이란 늙은 중이다.

그러면 백 운학은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행여나 알세라 서장 자신이 직접 그를 취조하는 것일까?

—그래 그 돌 부처가 어디루 간 걸 안다지
—글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모리 영검하시다구 해도 제발로 걸어 갔을 리는 만무구요
—그래!
—그게 먹는거나 입는 물건두 아니니 가난한 사람이 가져 갔을 리두 없구요.
—그래서?
—그게 또 금덩어리로 만든 값진 물건도 아니니 보통 사사'사람이야 아무런 소용두 닿지 않은 그걸 가져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훔쳐 갔단 말야?
—거야 서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뭘 그러십니까?
—내가 뭘 알아? 이놈이!
—허허 서장님이 모르신다구 허면 저도 모릅죠.
—그러면서 왜 근거두 없는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돌아 댕기느냐 말야! 어?
—류언비어요?
—그래 알지두 못허구 미국 사람이 가져 갔다는 건 뭐야?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작년 봄에는 미국 뉴욕에다 전시 허겠다구 우리나라 국보 1만 8천 여점을 실어 간건 신문에까지 나잖았습니까?
—누가 그걸 말 허는거야?
—그 후에두 경주 박물관의 〈모조 금관〉이며 리조 말엽의 유물인 〈순금 옥쇄〉며 그리구 공주 마곡사의 〈풍마등〉 같은 것두 죄다 미국서 가져 갔다는건 세상이 다 아는 노릇이 아닙니까?
—미국서 가져가든 말든 너같은 중놈이 상관이 뭐야?
—그게 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 유물인데 그런 국보가 어디루 간 것 쯤 알고 있는게 뭐 잘 못된게 있습니까?
—이놈이! 그럼 해인사의 돌 부처두 미국으로 가져 가는걸 네 눈으루 봤어?
—네 봤습니다.
—뭐시? 이자식 어디서 봤어?
—부산에서요.
—이 자식이 환장을 했나?
—환장이요? 백팔염주를 목에다 걸고 념불만 외우던 우리 승들이 부처님이 랍치 당해 가는 걸 몰랐을 리가 있소? 굵다란 각재로 만든 장 안에다 가둬 넣구잔뜩 결복을 해서 룬선에다 싣는 걸 내눈으루 똑똑히 봤소!
—이런 미친 자식 봤나! 함부루 막 지꺼려 대는구나! 임마! 그따우 류언비어를 어따해? 엥이 이자식!

서장은 일이 뒤틈이 난 것이 분한 듯 사정 없이 발'길로 찬다.

〈어이크!…〉 백운학은 옆구리를 움켜 쥐고 간신히 일어서서 서장을 쏘아본다.

—이 천벌을 맞을 놈들! 느이가 부처님까지 훔쳐다 미국 놈에게 넘겨 주구두 외려 날더러 류언비어라구?
—그래! 너 같은 반 국가적 류언비어자는 총살이다! 총살!

마침내 백 운학은 류언비어란 엄중한 죄목으로 처단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 의하여 해인사의 돌 부처는 〈려행 증명서〉나 〈입국 사정 증명서〉가 없이도 곳잘 미국으로 건너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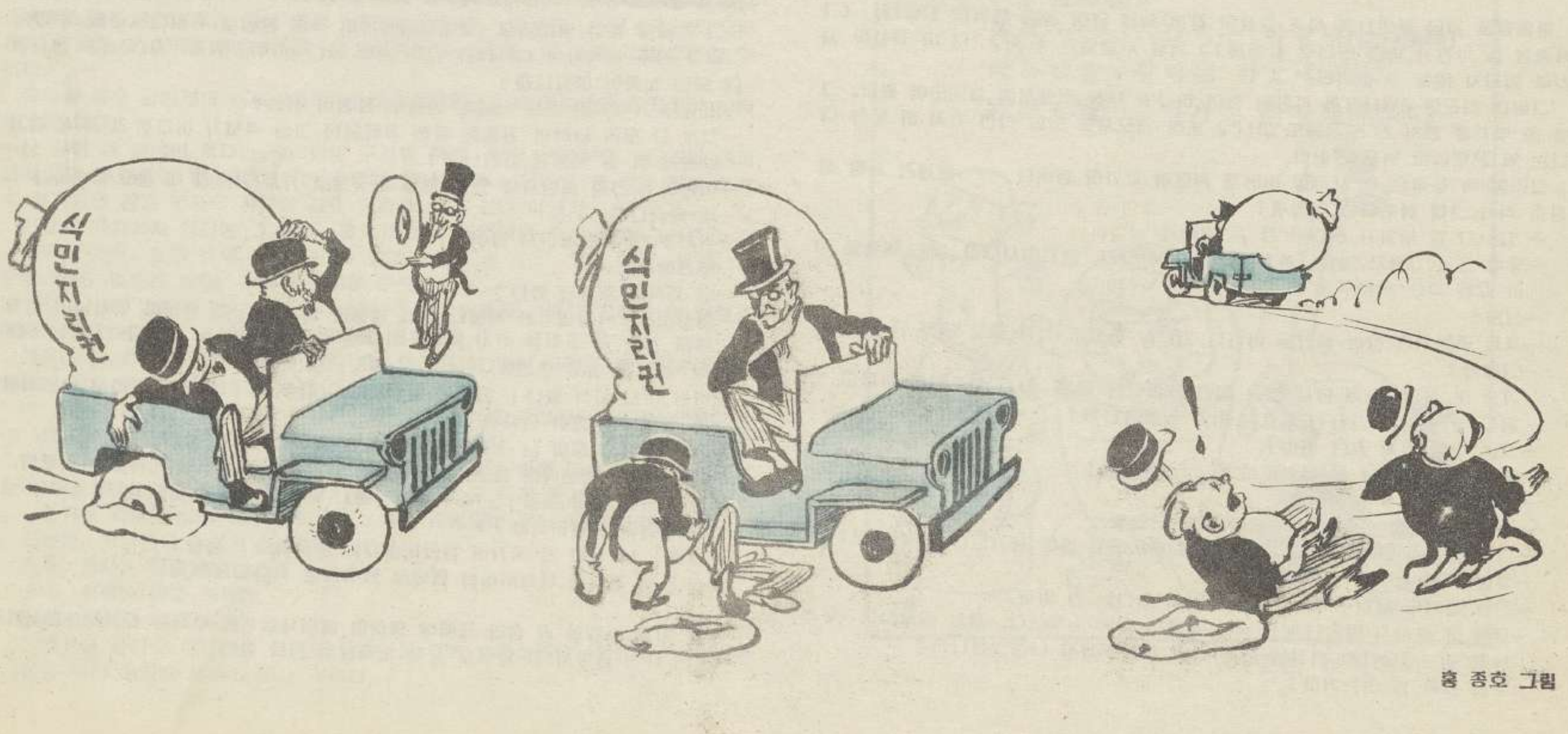
옛적 아이도 속지 않았다

박 승히 그림

—아가 아가 엄마가 왔다 문을 열어 다오
—아니 아니 우리 엄마 손은 승냥이 손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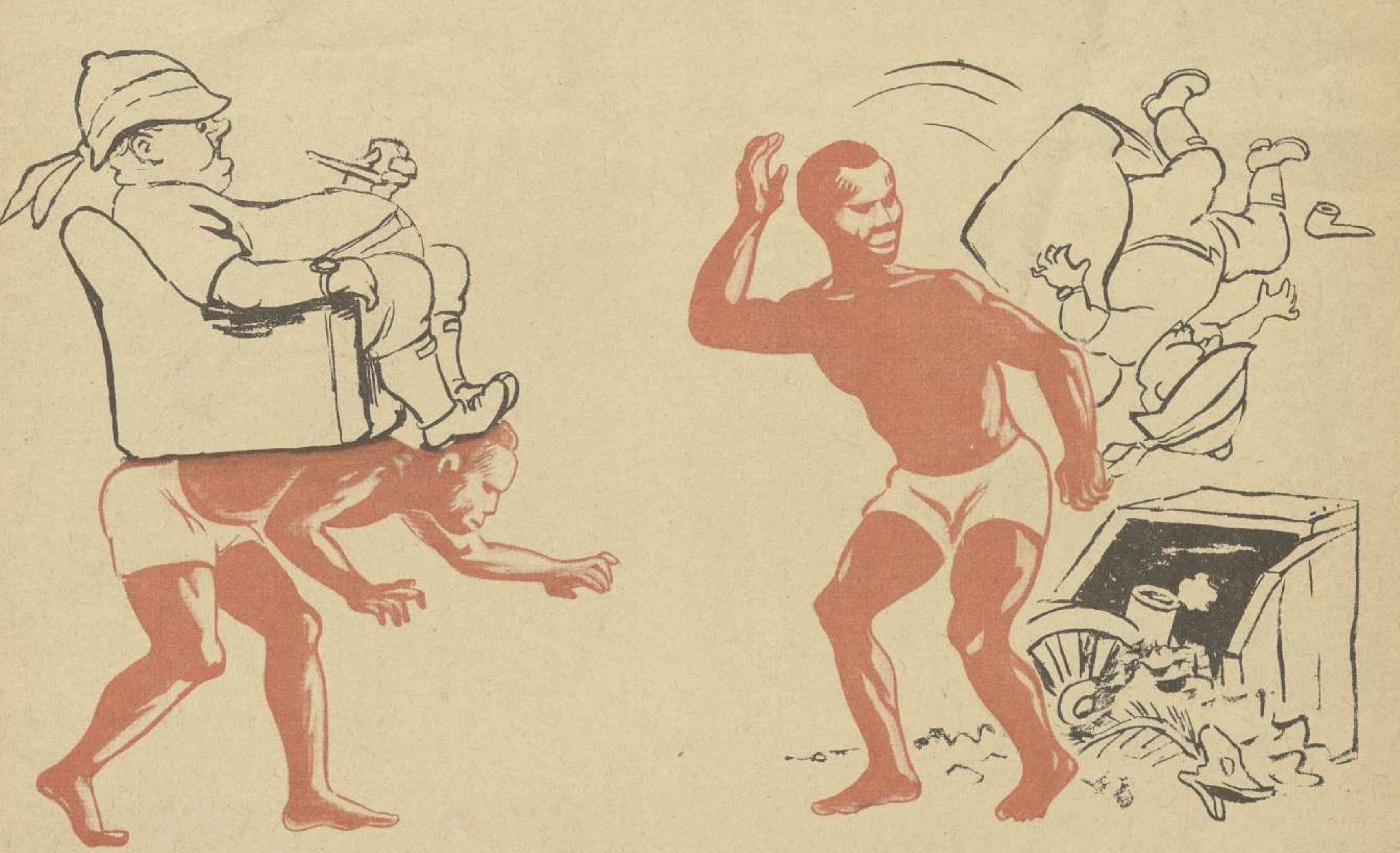
《아이젠 하워주의》를 한결 같이 반대 배격하고 있는 중근동 인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미국은 대통령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미, 영, 불 호상 협조



홍 종호 그림

아프리카는 일어섰다



박 승히 그림

거짓말쟁이 학교

반공산주의적 허위 중상을 일삼으며 그 경험을 풍부히 하며 기능을 제고하려고 항상 념원하고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노다지 판을 만난 셈이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론쟁할 바 없는 권위자이며 뮨헨에 있는 《자유 구라파》 방송국의 탁월한 거짓말쟁이의 한사람인 에루네스트 란겐도르프로부터 거짓말을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았다.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며 그것을 찬란한《리론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자유주의 련맹》 뮨헨 대회에서 그는 거짓말의 원칙적인 론거까지 들어 연설하였다.

《전쟁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도 배신할 수도 있다. 다만 뒤'끄리가 들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묘하고 재치 있는 선전은 오늘날 동방에서 크다란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연설하였다.

《자유 세계》 정신에 립각한 이 진실한 자유주의자는 《동방》에서 완전하고 무제한한 자유로 거짓말을 할것을 주장했다. 란겐도르프에 의하면 아주 열광적으로 거짓말을 펴볼 수 있지만 긴요한 것은 교묘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이다.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적 소동 당시《자유 구라파 방송국의 사촉적 역할을 폭로한 함브르그 신문《디웰리트》지에 대하여 란겐도르프는 대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격분하여 쓰고 있다. 《사회 여론은《자유 구라파》 방송국에 대한 국가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국가 통제에 넘긴다는 것은 공산주의 제국가들에서의 우리의 활동과 세력을 축소할 것이며 그는 우리의 활동을 저지시킬 것이다.》

진보적인 세계 여론은 바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자유 구라파》 방송국의 흉악한 선동적 책동에 끝장을 낼 것과 구라파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뮨헨의 라디오 거짓말쟁이의 학교를 소탕 할 것을.

쏘련 문학 신문 에서

장사치들은 유쾌하지만

서구라파 렬강들의 《공동 시장》 창설에 있어서 불란서는 가장 활동적인 창시자들 중의 하나이다. 알제리야에서의 전쟁, 수에즈의 모험, 군비 경쟁, 이 모든 것은 불란서의 국고를 고갈시켰다. 불란서의 독점체들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사업을 개선해 보려고 타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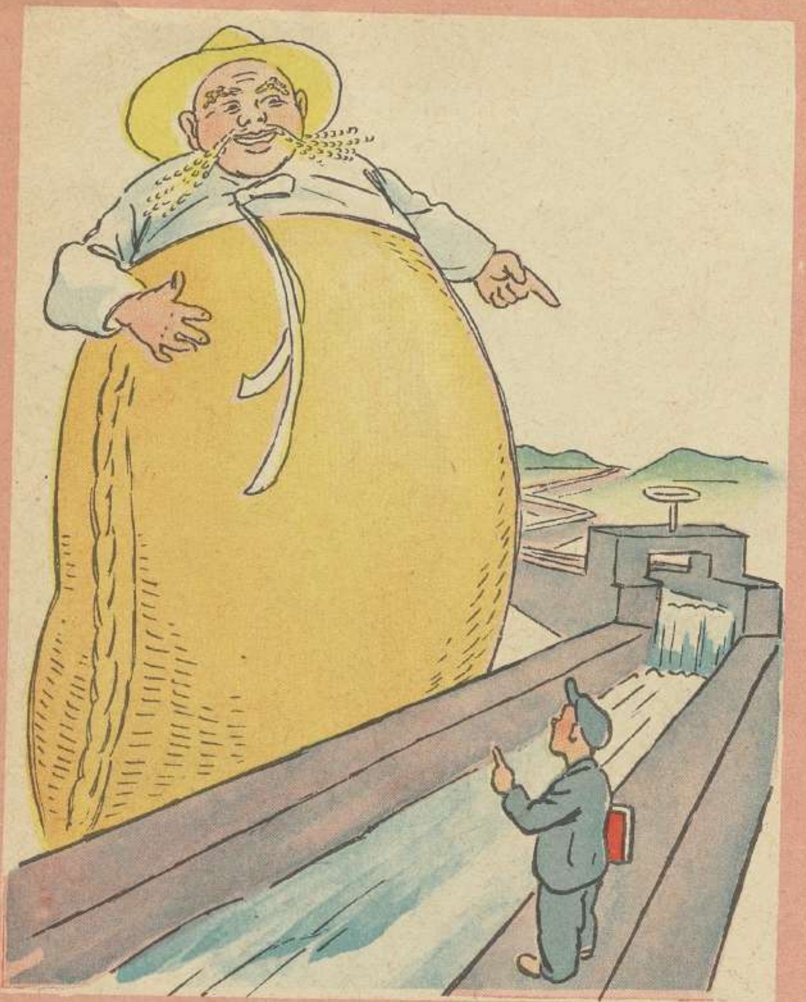
그런데 어디에서 돈을 구한단 말인가? 대단히 모험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는바 이는 불란서가 불령 아프리카에다 외국 자본을 투입시키는 문제이다. 서부 독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망이 유리할 것이다. 《공동 시장》이나 또는 이와 동종류의 《구라파—아프리카 련맹》에서나 서부 독일의 실업가들과 금융업자들이 불란서의 식민지들에다 두 발을 들여 놓으려는 그들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가능성을 성숙시켰으며 또한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헤게모니를 확립할 가능성을 성숙시켰다.

그렇다면 《공동 시장》에서 누가 부유해지며 누가 파멸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게재한 외국 만화가 대답하고 있다.

—참 편리하구나, 나는 모든 것을 구입허구 너는 돈을 지불해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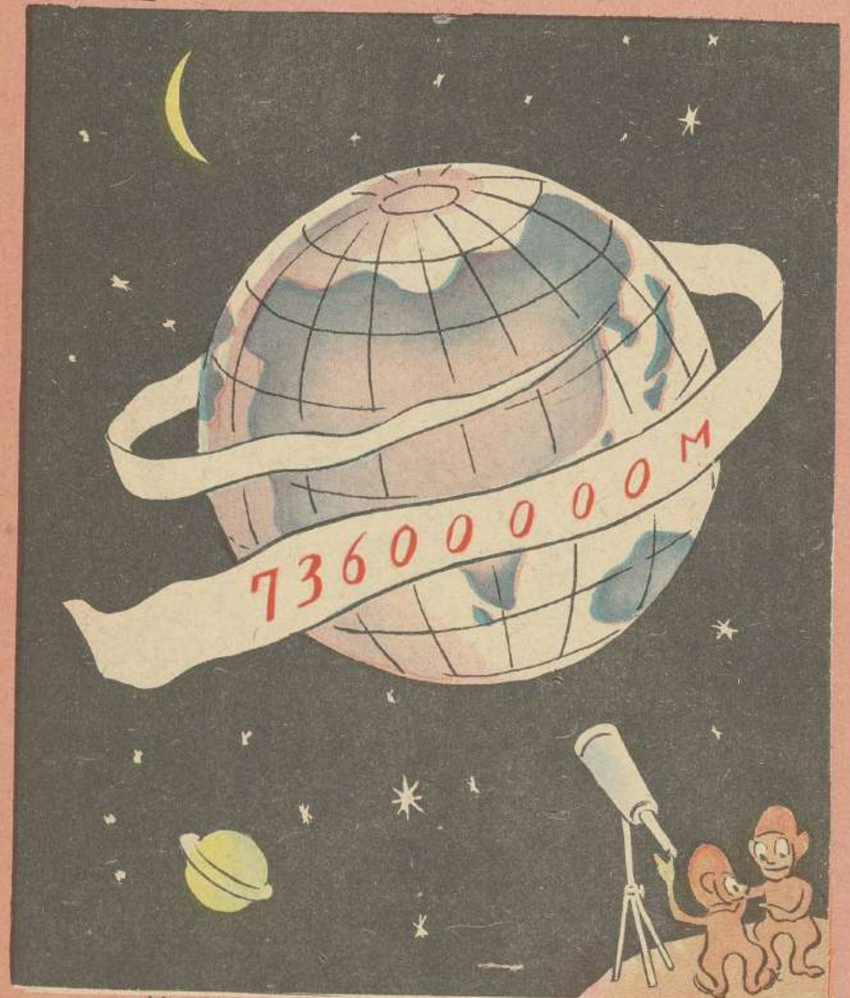
불란서의 주간 잡지 《위우으리예추》에서

(한동신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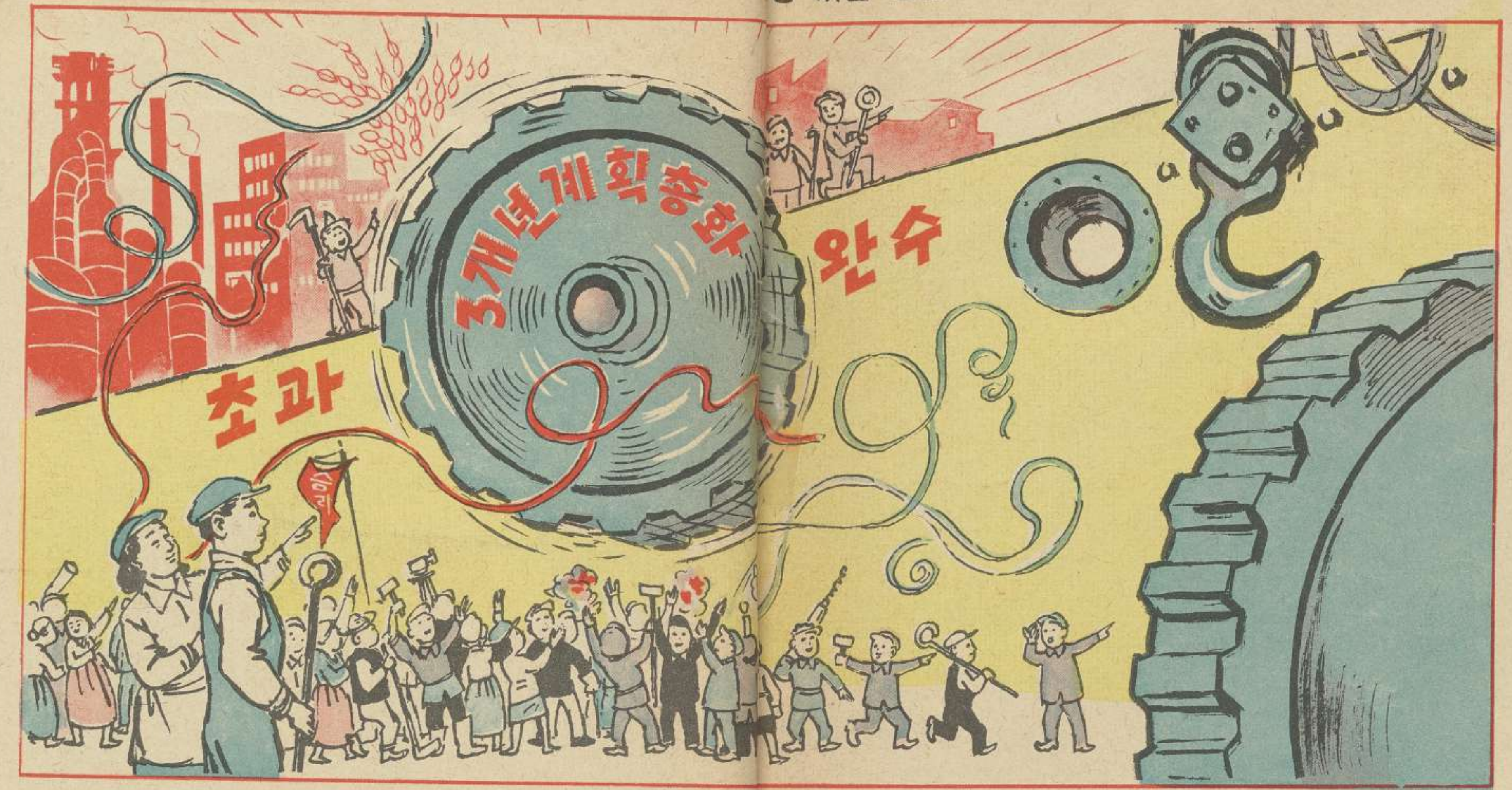
—3년 동안에 퍽 커졌구만요
—13만 4천 정보의 관개 확장의 덕분이 크지.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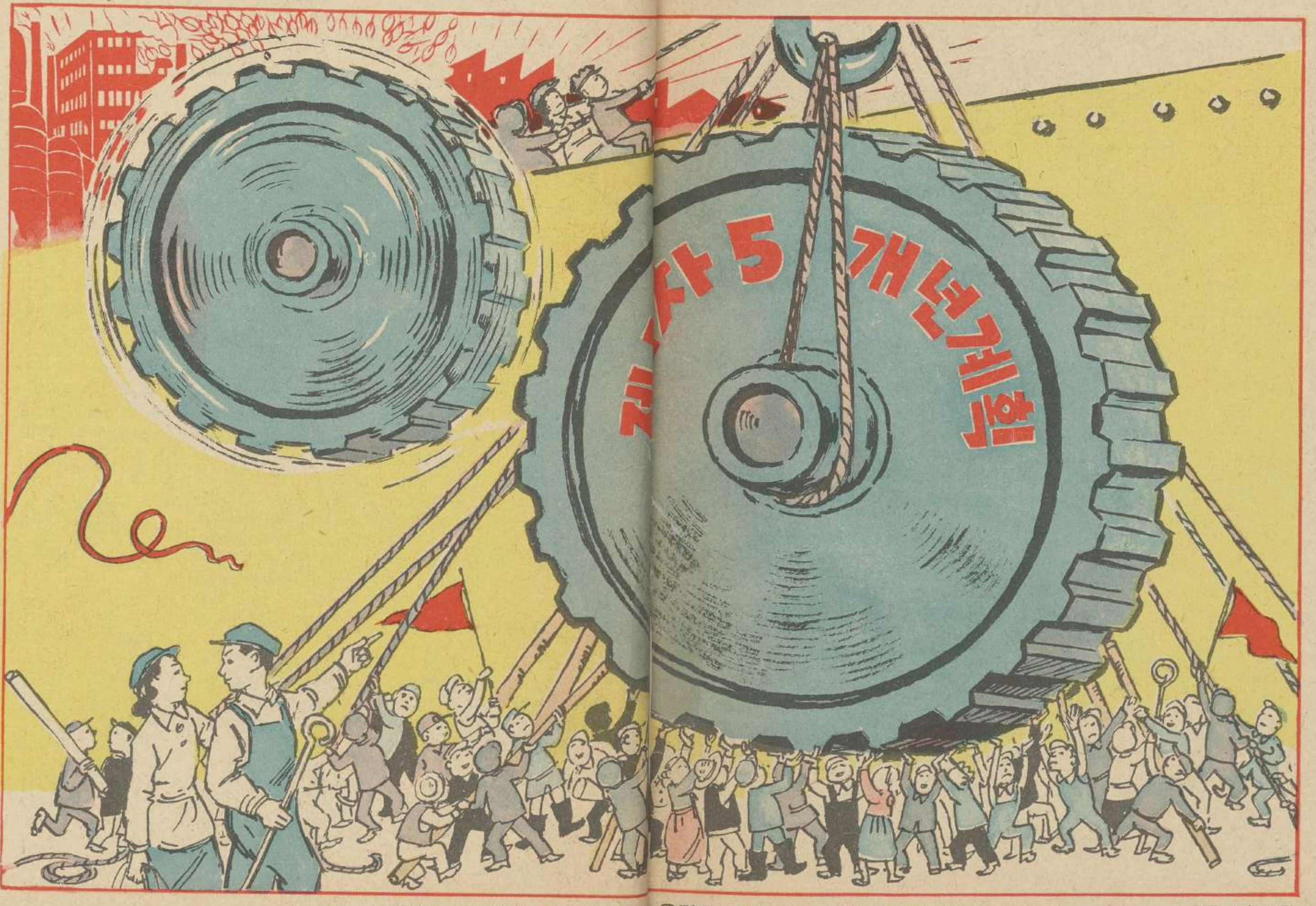


화성에서
—지구에 감긴게 뭘까?
—글쎄 작년에 북조선에서 생산된 면직물일 거야

힘찬 대오. 성 있는 전진



—3개년 계획의 거대한 성과는 제 1차 5개년 계획 승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지요.



—그러나 거대한 업적들은 언제나 곤난 용감히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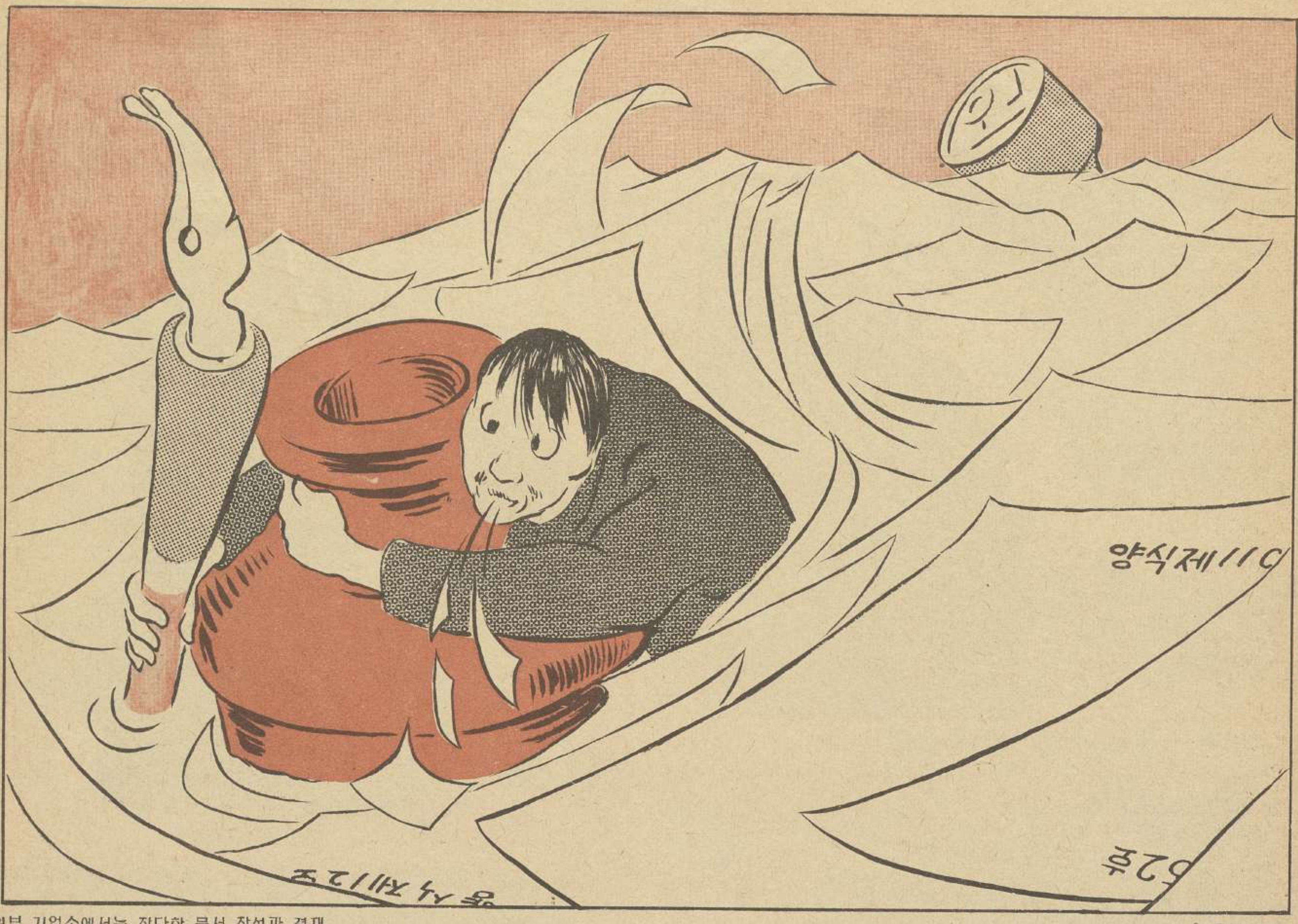
리 영춘 그림

—4년 전 내 모습은 나도 몰라 보겠군!
하기야 4배나 장성 했으니까…

최 영근 그림

—1천 340만 평방이나 집을 지었으니
우리들도 5층 처마 밑으로 옮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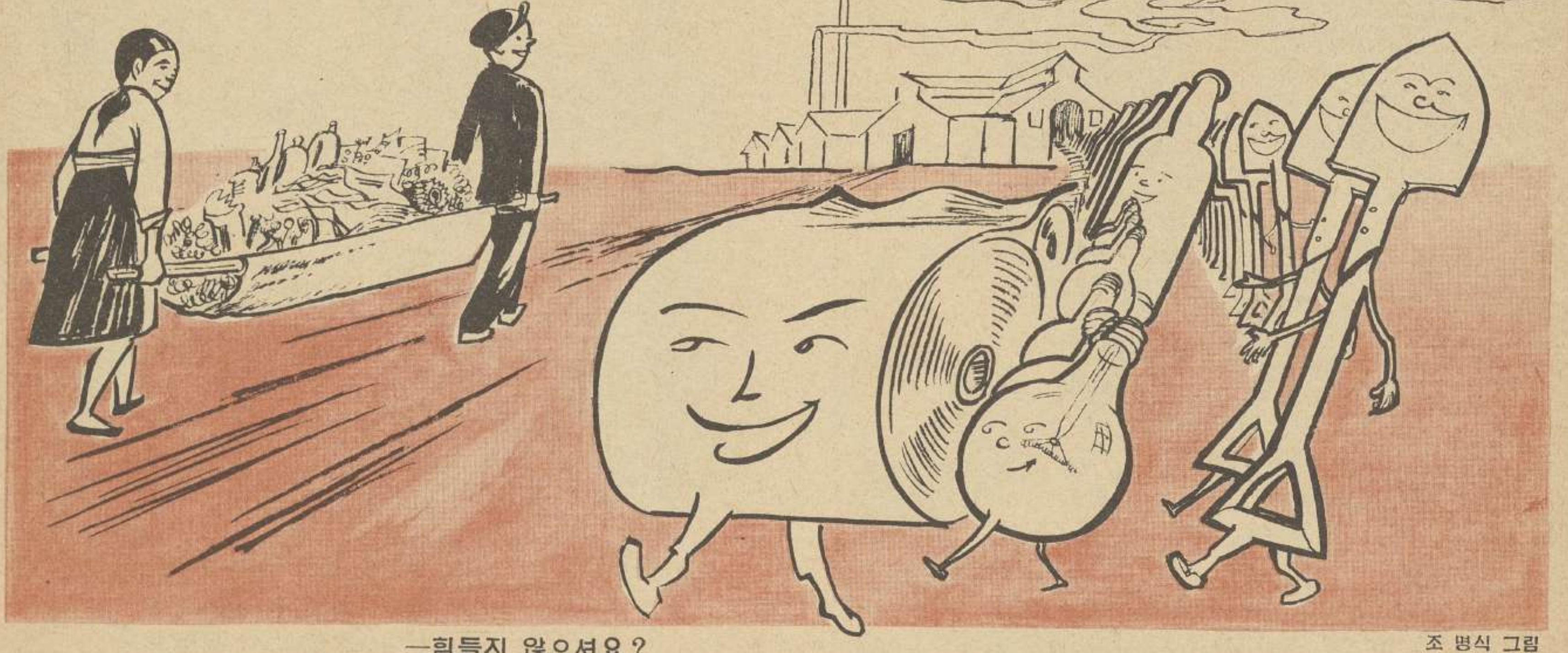
문서주의 홍수



일부 기업소에서는 잡다한 문서 작성과 결재 제도를 만들므로써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송 용남 그림

우리에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조 병식 그림

—힘들지 않으셔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저렇게 훌륭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아요

공차 아닌 공차

여기는 국경역 남양——두만강만 넘어서면 곧 중국이다.

각종 화물들을 만재한 화차들이, 그리고 화물들을 부리고 텅 빈 공차들이, 매일 같이 이 곳을 통과하여 혹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혹은 국내로부터 외국으로 꼬리를 물고 달린다.

그런데 이 남양 역에는 짐을 실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결코 공차라고도 할 수 없는 화차들이 가끔 나타난다.

수입 석탄을 싣고 들어왔던 무개 화차가 바닥에 반 톤 내지 한톤 쯤의 석탄을 남겨 둔 채, 국외로 나가려고 이리로 오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석탄을 부릴 때, 화차 밑바닥에 얼어 붙은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이렇게 귀중한 수입탄을 채 부리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려니와 그것을 검사도 하지 않고 떠나 보내는 지도 일'군도 또한 한심한 사람들이다.

얼어 붙은 석탄을 부리기는 물론 얼지 않은 것 보다는 귀찮은 일이다. 망치나 곡괭이로 까 내야 하니까——그러나 이 수입탄을사 들일 수 있는 외화는, 망치나 곡괭이로 화차 밑바닥을 약간 뚜드리는 정도의 로력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가 하면 유조차는 휘발유나 모빌유나 지젤유 등을 배'속에 아직 얼마씩 간직한채 출국 허가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것도 그 귀중한 기름을 한 동이나 두 동이 정도가 아니라 열 도라무 통이나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휘발유나 모빌유나 지젤유가 밑바닥에 얼어 붙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망치나 곡괭이로 뚜드릴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무언가 뚜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처럼 무책임한 랑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일 것이다.

대체 이런 외화 랑비를 하는자는 누구 누군가? 이 질문에 일일히 대답하지는 않겠다. 소원이라면 다음의 한 례만 소개하겠다.

금년 3월 3일에 50톤급 유조차 7141호가 남양에서 출국을 기다리게 되였는데 비였어야 할 거기에서 지젤유 10 도라무를 뽑아낼 수가 있었다. 이 7141호 유조차는 아오지 연유 관리소에서 지젤유를 부리고 돌아가는 길이였다.

절단지 쯤이야

국영 종합 인쇄 공장에서는 건물을 증축하노라고 주변에 있던 하수도들을 되는대로 모두 메웠다. 인제 장마철이나 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그러나 장마까지에는 아직 몇 달이 있고……

겨울 동안에 석탄재로 공장 마당에는 알프스 련봉이 이루어졌다. 그래 하도 보기 흉칙해서 주변 주민들이 공장 안을 잘 청소해 달라고 요망하게 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요망이 몇 번인가 거듭되였을 때, 종합 인쇄 공장 지도 일'군들은 좋은 수를 생각해 냈다. 집터를 닦다 말다 해서 아직 우멍구멍한 자리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석탄 재며 쓰레기를 밀어 넣자는 생각이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다.

그런데 석탄재로 우멍구멍한 자리들을 메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다. 재는 우선 얼었으니 까내야 하고 운반 하자니 무겁다. 인쇄 공장이라 흔한 것이 절단지다. 절단지는 가볍고 다루기 깨끗하고……그래서 우묵한 곳 마다 절단지로 메우고 그 우에 석탄재를 덮어서 눈 가리우고 냐옹 한 셈.

그래, 옆에서 보고 있던 동네 녀인이 〈애개개, 그 아까운 걸 땅에 묻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한테 좀 주세요.〉하고 말하자,

〈국가 재산인데 함부루 남에게 줄 수 있나요.〉하고, 거절한다. 말씀만은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껴야 할 국가 재산을 썩여 버리니까 문제다. 인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종이로 재생될 수 있는 귀중한 원료라는 것쯤 인쇄소 일'군들인 그들도 모를리 없는 일——

고기는 어디 있을까?

홍 종호 그림

멸치—우리는 고기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

불행한 손잡이

원 광수 그림

선경이니 좋을 수 밖에

옛날 어느 곳에 한 소경이 살았다.

그의 평생 소원은 선경에 한번 가 보는 것이였다. 어떻게 하면 신선들이 산다는 선경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늘 선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 동네 사는 한 젊은이가 그 소경을 찾아왔다.

〈아주바니, 선경으루 가는 길을 알아 왔어요.〉

소경은 반가워 하며

〈뭐, 선경으루 가는 길을? 그럼 날 좀 선경으루 다려다 주게나.〉 하고, 졸랐다. 그리하여 청년은 소경을 데리고 뒤'산으로 올라가서 하루종일 로록 산'속을 헤매였다. 험한 바위 우로도 일부러 끌고 올라갔고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도 끌고 다녔다. 소경은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팠으나 참고 따라 오며 자꾸만 물었다.

〈이 사람아, 아직도 먼가?〉

저녁녘에야 청년은 소경네 집 뒤에 있는 벼랑 우로 그를 인도했다.

〈인제는 다 왔습니다. 저기 발 밑에 신선들이 사는 선경이 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너무나 기뻐서 히죽히죽 웃으며 귀를 기울여 산 밑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더니, 신기한 듯이 중얼거렸다.

〈거참! 선경에 오니까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두 참 아름답군! 우리 속세에서야 어디 저렇게 아름다운 개 소리, 닭 소리를 들을 수 있을라구!〉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며 코를 벌름거려 냄새를 맡으면서 중얼거렸다.

〈야아! 선경이 역시 선경이로구나! 무슨 꽃이 냄새가 이렇게 향기 로울까! 이런 곳에서 한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뒤에 서서 보고 있던 젊은이가

〈아주바니, 여기서 한평생 살게 해 드리죠!〉

하면서 소경을 벼랑 아래로 떠밀었다. 소경은 벼랑을 떼굴 떼굴 굴어서 자기 집 마당까지 내려왔다. 집에서 나오던 마누라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래며 〈령감님, 이게 웬 일이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경은 자못 이상하다는 듯이

〈마누라는 어떻게 선경엘 미리 와 있었소?〉

어느 은행에서

저금열은 날로 높아 가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며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

—저금 한번 하기도 참 힘들구만!

최 영근 그림

문서주의자

유 항 림

중국에는 옛날부터 《락양의 종이 값을 올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락양이란 옛날의 중국 수도이던 곳으로 훌륭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출판하노라고 락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는 말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종이 값을 올리려 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강 부장도 이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강 부장은 무슨 문제이든 하부 일'군이 구두로만 제의하거나 답신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부 일'군이 무어든 할 말이 있어서 차근차근히 부장동무에게 설명을 하면, 때로는 다 듣고 나서 《그럼, 지금 말한 그걸 문서로 제출해 주시오》 하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허두만 듣고 곧 《그런 문제면 서면으로 내 주시오.》 하고 말을 밀막아 버린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직접 하부인 지도원 박 동무는(이 부는 부장 한명 지도원 한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제는 요령이 생겨서 부장동무에게는 애혀 처음부터 문서로서만 보고 제의 답신 등의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상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구두로 하는 것은 한갖 추가적인 로력이고 비 실효적인 항목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인가 강 부장이 사업하시는 광경을 종일토록 볼 기회가 있었다. 단 하나의 부장과 단 하나의 지도원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종일토록 문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내가 어렸을 때 한동네 살던 어떤 령감을 나는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령감은 늙은 마누라에게 무어든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에익》하고 외마디 고함을 지르고 사랑방으로 나가서는 수삼일 동안은 안'방으로는 발'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때때로 내 친구였던 그의 손자를 불러서는 《이거 할머니한테 갖다 뵈거라》하고 편지 쪽지를 써 보내군 했다. 그 내용인즉 《버선》 《손수건》하고 두어자 적어 있기도 하고 길대야 《비가 오려는데 장'독깨가 열려있다.》 하는 정도였다.

물론 강 부장은 박 지도원과 싸운 일도 없으며 또 안'방과 사랑방에 갈려 있는 바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령감님의 편지 쪽지 같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도 아니니까 물론 두 경우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어쨌든, 이마를 맞대고 앉아 있는 박 지도원과의 사이에도 이렇듯 문서질을 일삼고 있으니, 산하 기업소들에 대한 〈문서 요구성〉이 얼마나 강했을는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날은 박 지도원과 함께 퇴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일이 있다.

《우리 관리국에서두 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을 텐데……》

《부장동무 우리 관리국 산하 기업소 치구 도급제를 실시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소 말구, 관리국 자체 말이요》

《사무기관에서야 어떻게 도급제를?》

《그렇지도 않지, 가령 말해서 하루에 문서를 몇 장 또는 몇 건 작성하는 게 기준량이라구정한다든가 하는……》

《그럼, 부장동무가 그걸 한번 상부에 문서루 제기해 보시지요.》

문서 작성으로 기준량을 정하는 도급제가 그 관리국에서 실시되지 못한 것은 강 부장을 위하여 통탄할 일이다. 그런 도급제만 실시 되었다면 강 부장은 매일 여러 백 프로의 실적을 올렸으리란 데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런데 정력적인 그의 문서 작성열에 대해서는 찬사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판이 돌아왔다. 그렇듯 하루 종일 문서만 만드노라기에 어디 사업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비판이였다.

비판을 받은 후로 강 부장은 방침을 약간 변경해서 자신은 문서를 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대신 산하 기업소들에는 구두로 혹은 전화로 보고며 통계를 요구하는 회'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거리도 가깝고 전화를 걸기도 편한 시내의 산하 기업소는 한결 더 자주 문서를 올려야 할 수 밖에……

그런데 어느 날 강 부장 방에 자그만 화재가 있어서 그만 문서장이 타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가 그처럼 열성을 다해서 모아 들인 문서가 몽땅 없어지고 말았는데도, 이상스러운 일은, 강 부장의 그 후의 사업에는 별반 지장이 없었다고——

막혔다

덕흥 광산에서는 자기 지방에 산재돼 있는 고손목을 생산용 연료로 사용할 수 ㅆ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서 실어오는 무연탄에만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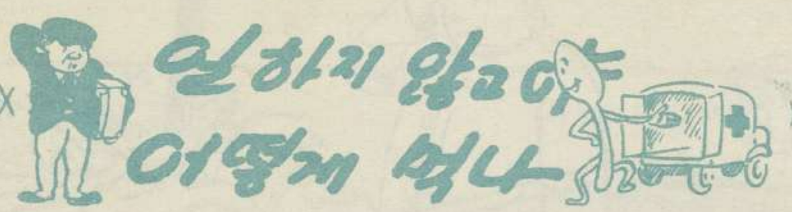
—길이 이렇게 막혀서야 연료를 어떻게 확보하나?

송 용남 그림

이것도 시험용 전렬긴가?

일부 실험실들에서는 실험용 전력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일하지 않고야 어떻게 먹나

안 성수

번화한 거리의 한복판으로
젊은이는 드디어 찾어 왔다네

중학교를 나올 때는 꿈도 많거늘
농촌을 떠나 오며 속셈하기를
〈편히 먹고 살 곳을 찾아 보리라〉
정말로 그렇다면 괜니 왔구나
일하지 않고야 어떻게 먹나

창문 열린 사무실을 드려다보니
편히 앉긴 하였지만 사무원 동무
책상에 높이 쌓인 서류 꺼내여
분주히 써놓고는 땀을 씻으니
〈여기도 편한 곳이 아니로구나.〉

정말로 그렇다면 괜니 왔구나
일하지 않고야 어떻게 먹나

생산 협동 조합 사무실을 드려다 보니
편히 앉긴 하였지만 검사원 동무
제품을 달아보고 또 재여보고
도장을 누르고는 땀을 씻기에
〈그 노릇도 못해 먹을 노릇이로군.〉

정말로 그렇다면 괜니 왔구나
일하지 않고야 어떻게 먹나

두루 찾아 돌던 끝에 병원 문 앞에
〈여보시요 여기에 나를 받아주 〉
간호원은 아래 우로 훑어 보더니
귀여운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건강한 사람은 받지 않아요
정신 병자라면 신의주에로——.〉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지않더냐
일하지 않고야 어떻게 먹나

특용실

김 상애

바람이 부는대로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보건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가 돌려지고 있다.

특히 각 부락 마다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였고 야간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여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

여기 황해남도 삼천군 제 1 간이 진료소에도 매일 같이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모여 온다. 아침 느즈막이 출을 차리고 나타난 리 용선 소장 선생,——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전일에 주신 약을 갖다 먹어두 낳지를 않아서요》

《그럼 다른 약을 써 보시지요》

진찰은 하나 마나, 건위정이면 대충 함제던 준비된 대로 약을 쥐 보낸다.

그런데 하루 아침은 숨이 차게 선생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까?》

《급한 환자가 생겨서 부득이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피로우신대로 좀 가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 살을 찌프리고 섰던 소장 선생님 얼마 후에야 《지금은 곤난한데요——오후 2시에 가지요》

될수록 속히 나와달라는 신신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은 돌아갔다.

오후 2시는커녕 저녁 때가 되여도 소장 선생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밤에 또 다시 진료소로 갔다.

《아니 밤'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밤'중에 미안합니다. 병세는 차도가 없고 선생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그렇게 심하면 낮에 왔으면 좋을걸그랬군요. 오늘은 환자들도 없었는걸……》

소장 선생님은 약속한 사실조차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

《지금은 좀 곤난한데요……》

바쁜 일 때문에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자동차의 80%를 대동강변의 모래, 릉라도의 자갈을 각 건설장에 운반하는데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모래나 자갈을 싣는 현장에서 도로까지의 한 키로 가량 되는 길은 이름난 험한 길이다. 정식 도로가 아니니 도로 관리국에서는 보는체 만체——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모래나 자갈만 캐 오면 목적은 다하는 일.

그래서 이 길 아닌 길은 험한 길대로 남아 있다. 4단 5단이면 달릴 수 있는 평탄한 곳이건만 1단 2단으로 허덕여야 하는 길, 그러길래 휘발유는 세곱이나 소비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토의하면서 운전사들은 그 길을 고쳐야만 휘발유도 운행 시간도 절약되겠으니 자갈을 깔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이 제의를 접수한지 오란 소장 동지는 간부 회의에서도 운전사들에게 길을 닦겠다고 약속했건만 언제나 그보다도 더 바쁜 일 때문에 아직도 자갈을 못 깐다고——

하기야 모래나 자갈을 운반하는 자동차 사업소이니 자갈을 길에다 까는건 좀 서투른 작업일는지——

화주 없는 벽돌

화주들은 배차된 차로 유용하게 건설 자재들을 운반함으로써 작업 조직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성 14트레스트에서는 채취된 모래도 없이 14대나 배차를 요구하여 5대는 모래터까지 공차로 왕복 주행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또 1트레스트에서는 지정된 벽돌공장에서 실어 온 5대의 벽돌의 질이 나쁘다고 한 시간이나 대기하게 하다가 그중 2대는 끝내 하차 하지 않고 회송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일도 있다. 세대의 차가 동원되어 벽돌 운반의 임무를 맡았다. 평양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실은 세대의 차는 증산 경쟁의 불꽃이 튀는 건설장으로 신이 나서 달렸다. 화주의 요구대로 다층 주택 건설장으로 갔다. 그런데 이 건설장에서는

——우리게로 오는게 아니니 의대 공사장으로 가시오——

하는 수 없이 세대는 벽돌을 싣고 의대 공사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 공사장에서는 또

——우리게로 올 것이 아니니 다층주택 건설장으로 가시오——

이 건설장에서는 저 건설장으로 저 건설장에서는 이 건설장으로——아무데도 벽돌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세대의 차는 해질 무렵에 사업소 마당에 벽돌을 부리게 되었다. 화주 없는 벽돌이 주인을 기다린다.

에누리하는 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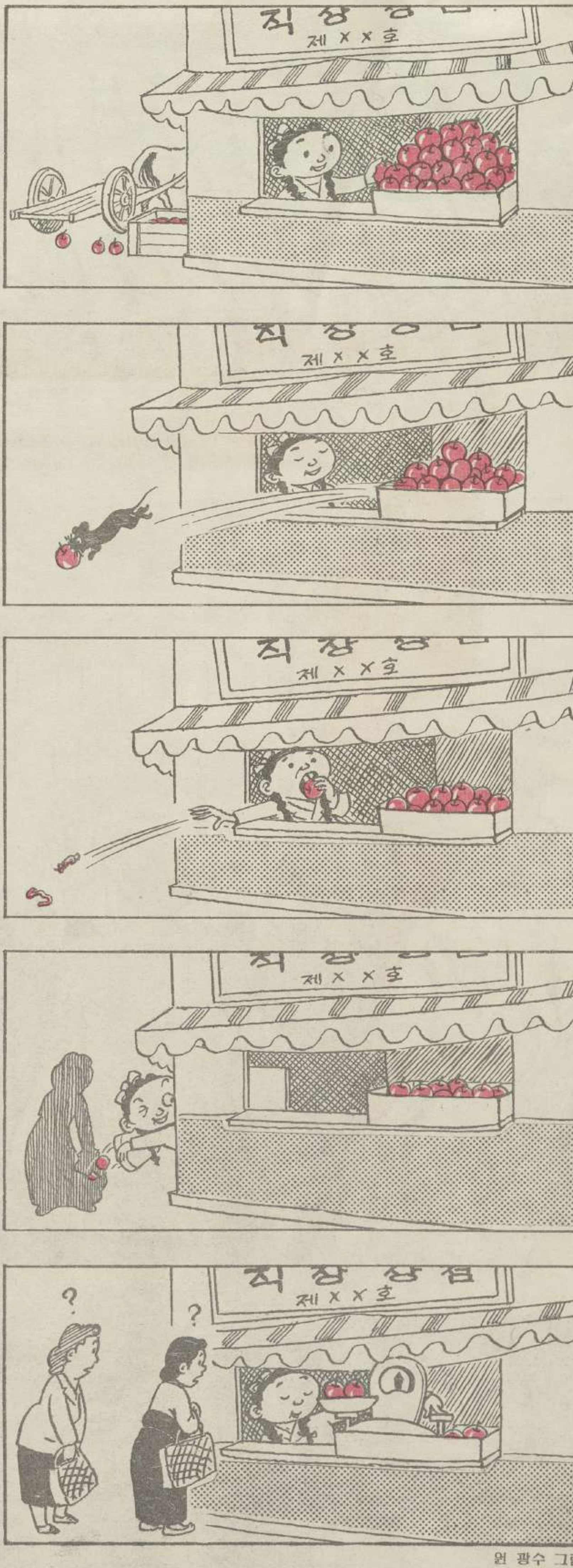
황북 사리원시 상업 관리소 산하 제 3, 제 4 배급소에서는 부정확한 도량형기를 사용한 까닭에 300g씩 공급하여야 할 콩기름을 4배급소에서는 10g씩 적게 배급 하였고 3배급소에서는 10g씩 더 배급하였다. 그리고 보니 주다가 못주기도 하고 주다 남은 곳도 있으나 남아 있어야 할 기름도 간데 없다. 또한 3배급소에서는 량곡 배급에 1,2kg를 더 올려 놓아도 저울 미가 끄덕도 안하는 앉은저울을 씀으로서 2일간에 량곡 47kg의 차이를 냈다. 이런 현상은 딴데는 없는지?

먹었으니까

제 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수송 운수 부문에 긴장된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 임무를 담당한 원산역 일'군들은 가끔 알선을 하는 까닭에 선차적으로 수송해야 할 화물을 젖혀놓고 차요한 화물을 우선적으로 수송하는 일이 많다.

화물 조역 오 경섭 동무를 비롯한 화물계, 출표계 일부 일'군들은 남달리 공짜를 퍽 좋아한다. 그래서 누구한테든 마음에 드는 물품이나 음주 접대를 받으면 그 화물은 다른 것 보다 먼저 탁송될 수 도 있고, 규정에 없는 화물도 탁송될 수 있다. 출표계에서는 승전은 되는대로 내주고 규정에 없는 별도 장부를 만들어 놓고 차표는 공무 려행자 보다도 낯 익은 보따리 장사'군이 먼저 살 수도 있다.

이런 상점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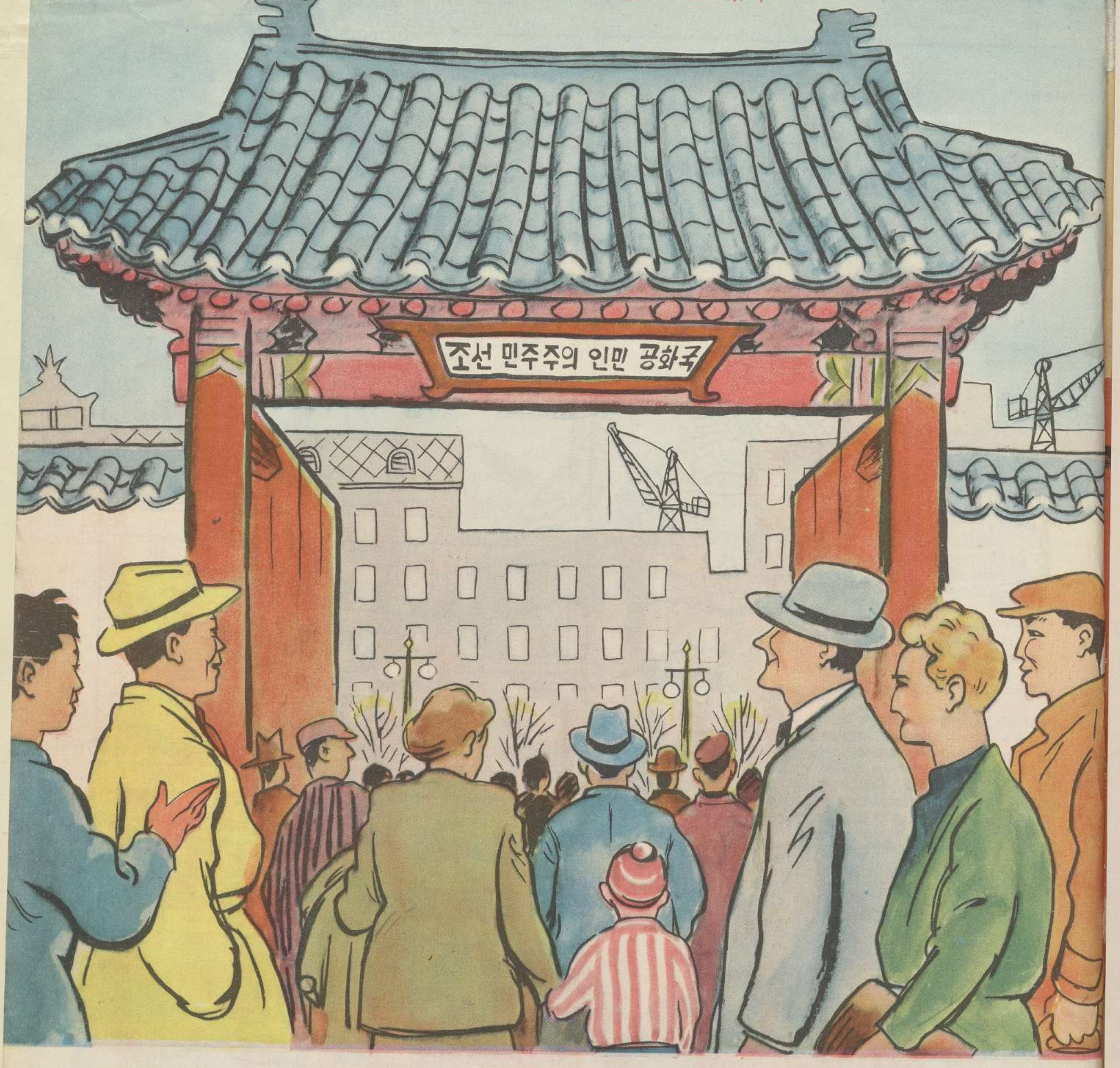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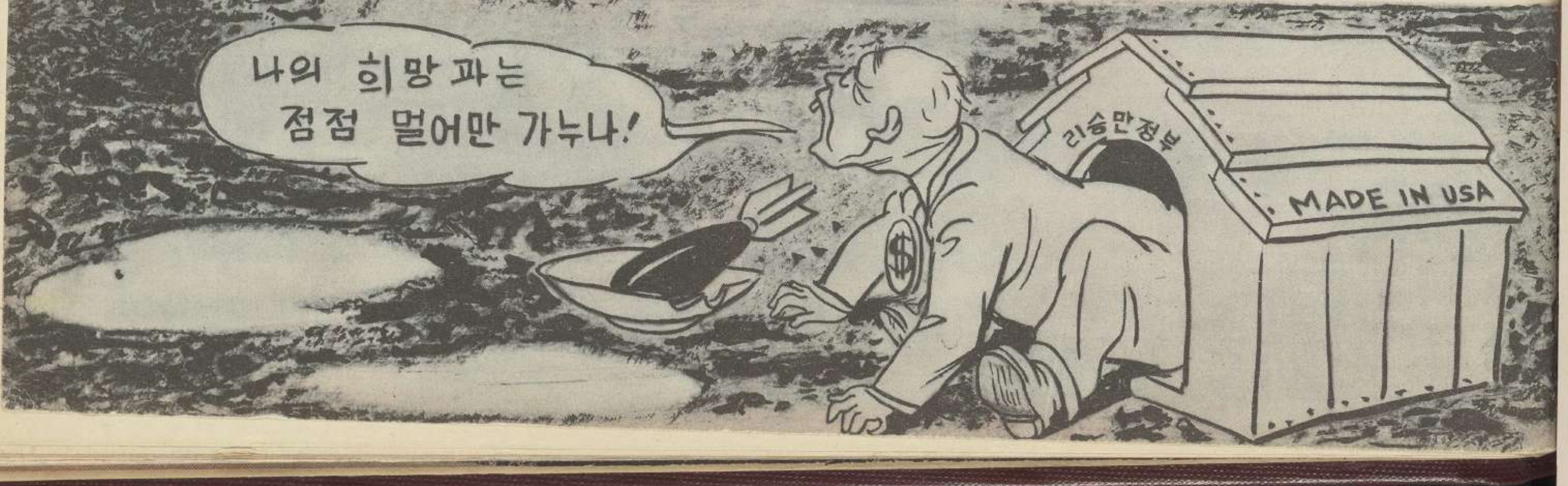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흥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4. 10 7—40435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4. 15 값 (50)원

국제적 친선 단결은 날로 강화 되고 있다



박 승히 그림